범어사 · 부산 역사, 책으로 묶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천년의 기록~〉 등 4종 발간

부산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국립진주박물관 협력사업 등
지자체 연계해 출판 성과 내
〈삼국유사〉 가치 알리는 계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부산광역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및 국립진주박물관 출판 협력 사업을 통해 선보인 출판물 4종.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 성보박물관이 불교문화와 부산의 역사를 아우르는 출판서적 4종을 발간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광역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및 국립진주박물관 출판 협력 사업으로 새로운 출판 성과물을 선보이게 됐다"고 발표했다.

출판물 4종은 △〈천년의 기록, 범어사 삼국유사〉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Memory of the World〉 △〈금빛물고기의 비밀-삼국유사 편〉 △〈범어사 역사를 담다, 닮다〉다.

〈천년의 기록, 범어사 삼국유사〉와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Memory of the World〉 그리고 〈금빛물고기의 비밀-삼국유사 편〉은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 연령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삼국유사〉는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된 기록유산이며,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국문도록으로 제작된 〈천년의 기록, 범어사 삼국유사〉는 주보돈(경북대), 채상식(부산대), 최영호(동아대)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삼국유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왔다. 영문도록인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Memory of the World〉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기록유산 가치에 공감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금빛물고기의 비밀〉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으로 눈길을 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처음 시도한 어린이 대상 도서로서 범어사 창건설화를 모티브로 주인공 '범이'가 이야기를 풀어 설명한다. 주인공 '범이'는 금정산 정상의 금빛 샘물(金井)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金魚)를 쫓으며 범어사를 탐방하고 〈삼국유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스토리로 구성됐다. 밝은 색상과 아기자기한 그림체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범어사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작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앞으로도 캐릭터 범이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할 계획이다.

마지막 책 〈범어사 역사를 담다, 닮다〉는 범어사 역사와 부산·경남의 지역사를 함께 담았다. 범어사 역사가 부산·경남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범어사의 창건부터 근대까지 역사를 안내한다. 특히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계 전문가들의 특별논고로 도록의 무게감을 더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부산시 지원사업으로 불교 문화유산이 종교적 산물을 넘어 우리 역사로 인식되고, 다양한 계층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 그림책 제작 등 새로운 시도와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 전쟁에서 범어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은 앞으로 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후속 연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대중이 공감하는 기획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박물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뽐내보세요

화엄사, 사진 콘테스트 개최
2월 25일~3월 23일 공모


지난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황전 옆 홍매화. 사진제공=화엄사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사찰의 보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화엄사 화엄매' 축제가 열린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제4회 구례 화엄사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2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개최한다.

'색을 듣고 소리를 보는 홍매화'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프로 사진과 휴대폰 사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3월 23일까지 주·야간(오전 7시~오후 8시 30분)을 촬영해 화엄사 홈페이지에 한 작품씩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4월 23일 홈페이지에서 최종 수상작을 발표한다.

심사는 작품의 완성도·심미성·활용성, 대중적 흥미도, 홍보 활용 가능성, 적합성, 공모전 기획 의도 부합성, 작품의 창의성 등 위주로 이뤄진다. 동점일 경우 작품성과 활용성 순으로 선정한다.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는 "촬영할 수 있는 산문 개방 시간 엄수와 홍매화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진 촬영 시 스님 초상권에 대해 화엄사 울력 시간에 노출된 사진만 허용하며, 개인적으로 스님을 촬영한 초상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들의 울력 시간을 이용해 홍매화와 함께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3월 2일 오전 7시 30분, 3월 9일 오전 7시 30분, 3월 16일 오전 7시 30분"이라며 "출품작 및 수상작 저작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이 갖고 추후 홍보 관련 업무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상은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에 경내 각황전에서 진행된다. 화엄사는 홍매화 개화가 2주 정도 앞당겨질 것을 대비해 2월 24일부터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갑룡장학회, 전주소년원에 장학금 전달

졸업생 5명에 250만원 전달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가 전주소년원을 방문해 장학금을 지원했다.〈사진〉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은 2월 8일 황동현 법무부 전주소년원협의회 고문, 오정열 소플러스 서대전점 대표와 함께 전주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를 찾아 장학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은 중·고등학교 교과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재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금은 2월 22일 졸업장 전수식 행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5명에게 각 50만원씩 전해질 예정이다.

진성 스님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힘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정훈 교장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관심 가져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진불교대학 제19기 졸업식…35명 졸업

2월 14일 강진불교회관서



강진 지역 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강진불교대학(학장 법오 스님)이 2월 14일 강진불교회관에서 제19기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졸업식에는 학장 법오 스님(무위사 주지), 법화 스님(월남사 주지), 수현 스님(신흥사 주지), 본호 스님(정수사 주지), 한태선 강진불교 총신도회장을 비롯해 35명의 졸업생이 참여했다.

법오 스님은 "불교는 다른 신앙과는 달리 공부가 쉬운 것이 아니다.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행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졸업식은 또 다른 시작으로 미진한 교과과목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더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불교대학은 3월 12일 제20기 입학식을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강진불교회관에서 강의가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금사회복지관, 소외계층에 자비나눔

200세대에 먹거리 등 후원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2월 7일 취약계층을 위한 '설 명절 정(情)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선물은 후원자들이 직접 포장했으며, 떡국 떡·참기름·미숫가루·햄·샴푸·식용유 등 1인당 6만원 상당으로 구성됐다. 선물은 부산진구 개금3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200세대에 지원됐다.

후원에는 사단법인 미소원,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고속열차승무사업소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리안코트, 카카오같이가치, 선진FNS, 아우림 봉사단, 우드빌 부녀회, 부산진구 사랑의열매 봉사단을 비롯한 개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

류강렬 관장은 "이번 나눔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의 결실"이라며 "소외이웃들이 행복한 설을 보내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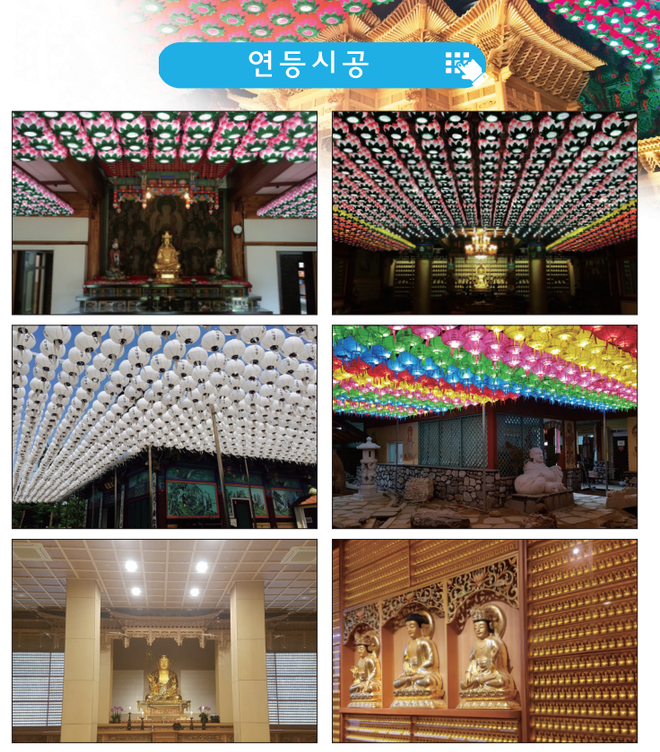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